

# 關闔樞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 예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關闔樞의配合原理 及幾個實例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關於三陰三陽의關闔樞의不同見解, 可歸納爲三種. 第一, 文字上, 關正確 還是開正確의問題. 第二, 厥陰是闔, 還是樞의問題. 第三, 關闔樞有沒有生理病理方面의作用.

這種混亂의起因是對關闔樞의配合原理和實用例子의研究不足. 對於關闔樞의生理病理作用, 我們能從楊上善의注釋和『靈樞·根結篇』當中看到理論根據. 根據楊上善의注釋和『靈樞·根結篇』, 三陰是人體의內門, 三陽是人體의外門; 具體的說, 太陽和太陰의作用可比作門의關, 少陽和少陰可比作門의樞, 陽明和厥陰可比作門의闔.

另外六氣是本, 三陰三陽是標, 太陽太陰(關)의本是水濕, 陽明厥陰(闔)의本是火燥, 少陽少陰(樞)의本是火熱, 所以關闔樞의本具有共同之處.

相反, 三陰三陽의表裏之本具有相反의屬性; 陽明太陰의本是燥濕, 太陽少陰의本是寒熱, 少陽厥陰의本是火風. 關於火風, 可簡單理解爲, 悶熱의時候, 如果刮大風, 我們感覺到涼快, 所以火和風有相反의屬性. 利用關闔樞의例子出現在『內經』, 傷寒厥陰熱利, 溫病藁朴夏苓湯證, 『東醫寶鑑』臟腑相關, 舍岩鍼法, 但不多. 利用關闔樞의時候, 肺-膀胱, 肝-大腸, 心-膽, 脾-小腸, 腎-三焦의手足關係一定成立.

關鍵詞: 三陰三陽, 關闔樞, 表裏, 臟腑相關.

## 1. 서론

三陰三陽의 關闔樞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 주요 논점은 關闔樞가 맞느냐 혹은 關闔樞가 맞느냐 하는 글자에

대한 것과 厥陰이 樞이나 闔이나 하는 것, 그리고 關闔樞가 어떠한 생리병리적인 작용을 갖느냐 하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開’를 ‘關’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중국에서는 『黃帝內經素問校釋』<sup>1)</sup>, 『素問補識』<sup>2)</sup>,

1)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

『中國經絡文獻通監』<sup>3)</sup>, 『針灸學』<sup>4)</sup>, 『新編黃帝內經綱目』<sup>5)</sup> 등 최근 나오는 서적들의 대부분이 ‘開’를 ‘關’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김<sup>6)</sup> 이<sup>7)</sup> 임<sup>8)</sup> 등에 의하여 ‘關’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따라 ‘關’자로 표기하였다.

‘厥陰爲樞’의 설은 『內經』에서 厥陰이 闔으로 되어 있는 것<sup>9)</sup>을 부정하고 厥陰이 樞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黃帝內經素問今釋』에서 方에 의하여 주장되었다.<sup>10)</sup>

또한 關闔樞의 생리병리적 작용에 대하여 임<sup>11)</sup>은 생리병리를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라 經絡配屬을 빗장, 문짝, 지도리에 단순하게 비유하여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라고 하여 어떠한 생리병리적인 작용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sup>12)</sup>의 논문에서는 ‘開’가 맞고 厥陰도 闔이 아니라 樞라고 하는 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三陰三陽의 關闔樞에 대한 논란은 關闔樞가 어떠한 조합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며, 또한 입상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생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關闔樞의 조합원리와 또 몇 가지 임상적으로 활용되는 예를 고찰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關闔樞의 조합원리

關闔樞의 조합원리는 생리병리적 작용의 측면과 三陰三陽의 標本의 측면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생리병리적 작용

關闔樞는 太陰 太陽이 關, 陽明 厥陰이 闔, 少陰 少陽이 樞로 되어 있다.<sup>13)</sup> 이렇게 조합되는 것은 楊上善에 의하면 문에 안쪽 문과 바깥쪽 문이 있듯이 우리 인체에도 이에 해당하는 三陰과 三陽이 있으며, 이 중 關은 안쪽 문과 바깥쪽 문에서 빗장의 역할을 하고, 闔은 문짝의 역할을 하고 樞는 지도리의 역할을 하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이를 다시 설명하면 바깥쪽 문에 해당하는 三陽에서는 太陽이 몸 속의 진액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데, 이는 문에서 빗장의 역할과 같고, 陽明이 眞氣 즉 經絡의 氣가 잘 들게 해주는데, 이는 문짝이 돌아가는 것과 같으며, 少陽은 힘줄을 주관하여 뼈마디 사이에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05-106쪽.

2) 胡天雄 著,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55쪽.

3) 鄧良月 主編, 中國經絡文獻通覽, 青島, 青島出版社, 1993, 131쪽.

4) 楊甲三 主編, 針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107쪽.

5) 李今庸 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143쪽.

6) 김인락, 내경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的 연구 (1), 대한원전전사학회지, 1991, 5권, 73-74쪽.

7)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전사학회지, 1996, 10권, 469쪽.

8) 임진석,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關闔樞, 대한원전전사학회지, 1998, 11권 2호, 22-23쪽.

9)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02쪽.

10)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성보사, 1983, 41쪽.

11) 임진석,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關闔樞, 대한원전전사학회지, 1998, 11권 2호, 26쪽.

12) 정창현, 三陰三陽의 關闔樞에 대한 신지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년 08월, 16권 2호, 275-279쪽.

13)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02-103쪽.

14)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전사학회지, 1996, 10권, 473쪽.

지도리의 역할과 같다는 것이다. 한편 三陰에서는 太陰이 水穀의 精微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關의 역할을 하며, 厥陰은 즐겁고 슬픈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짜의 역할을 하며, 少陰은 진액 즉 精을 주관하여 지도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靈樞·根結』에는 실제로 이러한 關闔樞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어떠한 병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sup>15)</sup> 이에 의하면 三陽에서 빗장 역할을 하는 太陽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마치 문이 활짝 열리듯이 갑작스런 질병(暴病)이 발생하며, 문짜 역할을 하여 眞氣를 잘 돌게 하는 陽明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眞氣가 肉을 자양하지 못하여 痿疾이 생기며, 지도리 역할을 하는 少陽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뼈가 흔들린다(骨搖)고 하였다. 그리고 三陰에서는 음식물의 精微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빗장 역할을 하는 太陰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설사하는 병(洞泄)이 생기고 기운이 부족해질 것이며(少氣),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문짜 역할을 하는 厥陰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즐겁고 슬픈 등의 감정표현이 부적절해지며(喜悲), 지도리 역할을 하는 少陰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脈에 맺힌 곳이 생겨 통하지 않게 된다(脈有所結而不通)고 하였다.

또한 『靈樞·根結』에는 치료에 대한 설명도 있다. 三陽에서 關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太陽에서 치료혈을 취하고, 闔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陽明에서 취하며, 樞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少陽에서 취한다고 하였고, 三陰에서 關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太陰에서 취하며, 闔의 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厥陰에서 취하며, 樞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少陰에서 취한다고 하였다.<sup>16)</sup>

15)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22쪽.

16)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22-125쪽.

『內經』 및 楊上善의 주에 나와 있는 이러한 關闔樞에 대한 설명은 三陰이 안쪽 문, 三陽이 바깥쪽 문이라는 인식 하에, 안쪽 문에서는 太陰, 厥陰, 少陰이 각각 關闔樞의 역할을 하고, 바깥쪽 문에서는 太陽, 陽明, 少陽이 각각 關闔樞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太陰 太陽이 關, 厥陰 陽明이 闔, 少陰 少陽이 樞로 짝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생리병리적인 면에서 각각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 關闔樞의 공통적인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이다.

## 2) 三陰三陽의 標本

三陰三陽은 標本中氣 이론에 의하면 六氣에 의하여 유발된 陰陽多少의 편차상태를 말한다. 즉 六氣가 本이 되고 三陰三陽이 標가 되는데, 少陰은 君火인 熱氣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고, 太陰은 濕氣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며, 厥陰은 風氣에 의하여, 陽明은 燥氣에 의하여, 太陽은 寒氣에 의하여 少陽은 相火인 火氣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다.<sup>17)</sup>

여기에서 關인 太陰과 太陽의 本을 살펴보면 각각 濕氣와 寒氣, 즉 水氣이다. 濕과 寒水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물기운이므로 서로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樞에 해당하는 少陰과 少陽의 本은 각각 君火인 熱氣와 相火인 火氣이다. 君火인 熱氣와 相火인 火氣도 서로 같은 불기운으로서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闔에 해당하는 厥陰과 陽明의 本은 각각 風氣와 燥氣인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는 濕이 존재할 수 없고 또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은 늘 濕하기 마련이므로, 風과 燥는 본질적인 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三陰三陽이 형성되는 본질적인 측면

17)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891-893쪽.

을 보면 關關樞는 각각 물 불 風(燥)의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三陰三陽의 標本關係는 表裏關係와 더불어 三陰三陽을 파악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表裏關係는 三陰三陽이 갖는 상반된 屬性에 따라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太陰의 本은 濕氣이고, 그와 表裏가 되는 陽明의 本은 燥氣이므로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갖고 있다. 太陽의 本은 寒氣이고 그와 表裏가 되는 少陰의 本은 君火인 熱氣로 서로 상반된 속성을 갖고 있다. 少陽의 本은 相火인 火氣이고, 그와 表裏가 되는 厥陰의 本은 風氣인데 여기서 더 올 때 부채질 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또한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三陰三陽의 太陽-太陰, 陽明-厥陰, 少陰-少陽의 關關樞 관계는 생리병리적인 측면과 標本에서 상호 공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 3. 몇 가지 활용 예

#### 1) 『內經』에서의 활용 예

『素問·陰陽別論』에서 “二陽一陰에서 발병하면 驚駭 背痛 善噫 善欠 등 증상이 나타나고, 二陰一陽에서 발병하면 善脹 心滿 善氣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三陰三陽에서 발병하면 偏枯 痿易 四肢不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sup>18)</sup>”고 하였다.

여기에서 二陽은 陽明이고 一陰은 厥陰으로 모두 關이다. 그러므로 二陽一陰에서 발병하였다는 것은 關에서 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二陰은 少陰이며 一陽은 少陽이다. 모두 樞이므로 二陰一陽에서 발병하였다는 것

은 樞에서 병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三陰은 太陰이며, 三陽은 太陽이다. 모두 關이므로 三陰三陽에서 발병하였다는 것은 關에서 병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素問·陰陽別論』에 나오는 二陽一陰發病, 二陰一陽發病, 三陽三陰發病的 조문은 關關樞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 2) 傷寒 白頭翁湯의 예

『傷寒論』厥陰病篇에 “熱利下重者, 白頭翁湯主之.”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下重은 裏急後重을 말하는 것으로, 肝熱이 大腸에 下迫하여 생긴 증상이다.

白頭翁湯은 白頭翁 黃柏 黃連 秦皮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백두옹은 肝經으로 들어가 厥陰熱利를 치료하는 주약이 되고, 秦皮도 또한 肝經으로 들어가 清熱涼肝하여 厥陰熱利를 치료하는 보조약이 된다.<sup>19)</sup>

여기에서 肝熱이 大腸으로 下迫하였다는 것은 간과 대장이 어떤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간은 厥陰이고 大腸은 陽明으로 서로 關의 관계에 있다.

#### 3) 溫病 藿朴夏苓湯의 예

藿朴夏苓湯은 濕溫에 濕이 熱보다 심한 경우에 특히 表濕이 심할 때에 사용하는 처방이다. 濕溫은 여름에 비가 올 때 잘 발생하는 외감성 질환으로 주로 三仁湯이나 藿朴夏苓湯을 많이 응용한다. 三仁湯은 주로 表濕보다 裏濕에 치우쳐 발병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藿朴夏苓湯은 주로 裏濕보다 表濕에 치우쳐 발병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藿朴夏苓湯에는 藿香과 豆豉가 들어가는데, 이 약물들은 방향성으로 衛氣를 宣通하여 表濕

18)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12쪽.

19) 李培生 主編,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535쪽.

을 푼다. 이러한 작용을 化濕이라고 하는데, 發汗法과 거의 같으나 發汗法에 비하여 땀이 적게 나오므로 化濕法이라고 한다. 이 처방에는 이 두 약물 외에 행인이 들어가는데, 이 행인은 폐에 작용하여 宣肺作用을 하여 衛分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방광으로 수분을 빠져나가게 한다. 그러므로 濕熱病에는 杏仁을 많이 사용한다. 즉 濕邪가 衛分으로 풀리면서 수액대사 기전으로 방광으로 흘러내리게 하여 表裏의 濕을 모두 풀어준다.<sup>20)</sup>

그러므로 杏仁은 水의 上源으로서 수액대사에 관여하는 폐와 또한 수액이 모여 있는 방광에 동시에 작용한다. 이러한 폐와 방광이 수액 조절작용으로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폐가 太陰 濕氣로 關에 해당하며, 방광이 太陽 寒氣로서 또한 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4) 『醫學入門』의 예

『醫學入門·臟腑條分』에 보면 『五臟穿鑿論』의 문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心和 膽은 서로 통한다.(心이 병들어 怔忡의 증상이 나타나면 溫膽爲主로 치료해야 하고, 膽이 병들어 戰慄癲狂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補心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肝과 大腸은 서로 통한다.(간이 병들었을 때에는 대장을 소통시켜야 하며, 대장이 병들었을 때에는 肝經을 고르는 것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비와 소장은 서로 통한다.(비가 병들었을 때에는 소장의 火를 빼내야 하며, 소장이 병들었을 때에는 脾土를 潤澤하게 하는 치료방법을 써야 한다.) 폐와 방광은 서로 통한다.(폐가 병들었을 때에는 방광의 水를 淸利하는 치료를 위주로 해야 하고, 그런 다음 淸濁을 分別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방광이 병들었을 때에는 폐기를 맑히는 방법을 위주로 치료해야 하고, 겹하여 吐法을 사용한다.) 신과 三焦는 서로 통한다.(신이 병들었을 때에는 三焦를 조화시켜야 하며, 三焦가 병들었을 때에는 補腎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신과 命門은 서로 통한다.(津液이 胃에서 虛할 때에는 右腎을 크게 補해야 한다.) 이는 臟腑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오묘함이다.”<sup>21)</sup>

이 문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있다. 하나는 關闔樞이다. 심과 담은 少陰 少陽으로 樞이고, 간과 대장은 厥陰 陽明으로 闔이며, 비와 소장은 太陰 太陽으로 關이며, 폐와 방광은 太陰 太陽으로 關이며, 신과 三焦는 少陰 少陽으로 樞이다. 그러나 신과 命門은 신은 少陰이지만 命門은 三陰三陽에 배속되지 않아 서로 연결시키기 곤란하다.

또 다른 하나의 연결고리는 手-足이다. 手少陰心和 足少陽膽, 足厥陰肝과 手陽明大腸, 足太陰脾와 手太陽小腸, 手太陰肺와 足太陽膀胱, 足少陰腎과 手少陽三焦, 이러한 조합은 모두 手와 足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신과 命門은 이 경우에도 예외에 속한다.

그러므로 『醫學入門』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은 신과 命門을 제외하면 모두 關闔樞와 手足, 두 연결고리로 설명할 수 있다.

#### 5) 『東醫寶鑑』의 예

『東醫寶鑑·五臟』의 臟腑相關 조문에 『醫學入門』의 글을 인용하여 심과 담, 간과 대장, 비와 소장, 폐와 방광, 신과 三焦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sup>22)</sup> 그 내용은 『醫學入門』과 거의 같은데, 폐가 병들었을 때 膀胱의 水를 淸利해야

21) 李梴 著, 醫學入門, 南昌: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154쪽.

22) 허준 저,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민문화사, 2002, 301쪽.

한다는 설명 다음에 『醫學入門』에는 있는 “그런 다음에 淸濁을 분별하는 치료방법을 쓴다.”의 문구가 없고, 또 신과 命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삭제되어 있다. 아마 신과 命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른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다.

그리고 『醫學入門』에는 臟腑條分の 설명 중 제일 뒷 부분인 三焦를 설명하는 주에 실려 있는 반면, 『東醫寶鑑』에서는 오장육부를 설명하는 앞 부분에 臟腑相關이라는 표제어를 새로 만들고, 『素問·通評虛實論』에 나오는 “五臟不平, 六腑閉塞之所生也.”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醫學入門』 인용문이 나온다. 이러한 편제상의 차이는 『東醫寶鑑』에서 臟腑相關의 내용을 중요시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6) 舍岩鍼法の 예

『舍岩道人針灸要訣』에 서술되어 있는 치료법의 배합은 주로 陰經病人 경우에는 陰經穴로만 되어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陰經病人데 陽經穴이 배속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表裏關係나 臟腑相關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臟腑相關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中肝을 肝實로 보고 합곡을 瀉하는데<sup>23)</sup>, 합곡은 手陽明大腸經의 原穴이다. 그러므로 肝實에 手陽明大腸經의 原穴인 합곡을 瀉한 것은 厥陰과 陽明이 關의 관계인 것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痢疾門」의 熱痢 항목에 보면 臍이 허약한 경우는 脾實에 속하는데, 陽谷을 補하는 방법이 나온다.<sup>24)</sup> 陽谷은 手太陽小腸經의 火穴이다. 手太陽小腸經은 足太陰脾經과는 太陽 太

陰으로 서로 關의 공통점이 있다. 脾實인 경우에는 實則瀉其子의 원칙에 의하여 金穴을 瀉하여야 하나, 火穴을 補함으로써 火克金을 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金을 瀉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임상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김씨일침요법』에도 臟腑相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sup>25)</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지는 않지만 關關樞를 활용한 예가 있으며, 또한 關關樞를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手와 足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 즉 폐-방광, 간-대장, 심-담, 비-소장, 신-삼초로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4. 고찰

關關樞가 옳으나, 開關樞가 옳느냐에 대한 것은 『靈樞·根結』에 나오는 병리적인 설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앞의 ‘생리병리적 작용’ 항목에서 말하였듯이, 三陽에서 太陽이 진액을 못나가게 하는 빗장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마치 문의 빗장이 망가졌을 때에 외부의 도둑이 거침없이 들어오듯이, 우리 몸에 邪氣가 거침없이 들어와 暴病이 생기는 것이며, 三陰에서 太陰이 水穀의 精微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빗장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설사(洞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병리적인 설명은 太陽 太陰을 빗장이라고 해야 가능하므로 關이 맞는 것이다. 만약 開로 한다면 『靈樞·根結』에 나오는 병리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厥陰이 樞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表裏와 臟腑相關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厥陰이 樞가 되면 表裏와 같게 된다. 이렇게 太陽-少陰, 陽明-太陰, 少陽-厥陰이 짝이 되는 것은 表裏의 관계이다. 앞에서 다루었던

23) 이태호 편저, 사암도인침구요결, 서울, 행림출판, 1985, 20쪽.

24) 이태호 편저, 사암도인침구요결, 서울, 행림출판, 1985, 59쪽.

25) 김광호 강의, 김씨일침요법, 일산, 대성의학사, 2002, 44쪽.

이 六氣와 三陰三陽은 本과 標의 관계이다. 六氣는 風火寒熱燥濕을 말하고 三陰三陽은 이 六氣로 인하여 발생된 陰陽多少의 편차상태이다. 이러한 三陰三陽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表裏와 臟腑相關의 개념이 모두 필요하다. 三陰三陽의 表裏나 關闔樞는 바로 本에 근거하여 짝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太陰-太陽은 물로서 關, 少陰-少陽은 火로서 樞, 厥陰-陽明은 風으로서 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表裏는 서로 상대적인 속성이 있는 것끼리 짝이 이루어진 것이다. 太陽과 少陰은 寒熱이 짝이 된 것이며, 陽明과 太陰은 燥濕이 짝이 된 것이며, 厥陰과 少陽은 風火가 짝이 된 것이다. 風火가 서로 반대적인 성질이라는 것은 더울 때 바람이 불면 시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少陰을 樞로 한 여러 활용 예가 『內經』 이후로 여럿 보이고 있으므로, 만약 厥陰이 樞라고 한다면 關闔樞가 아닌 表裏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表裏로 설명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經絡이다. 經絡은 太陰-陽明經이 앞을 흐르고 있고, 太陽-少陰經이 뒤를 흐르고 있으며 厥陰-少陽經이 옆을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表裏와 구분되는 關闔樞의 臟腑相關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三陰三陽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表裏와 더불어 臟腑相關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 론

- 1) 關闔樞는 三陰과 三陽, 즉 몸의 안쪽 문과 바깥쪽 문의 빗장과 문짝과 지도리를 의미하며, 생리병리적으로 각각 공통점을 갖고 있다.
- 2) 關인 太陽과 太陰은 그 本이 寒氣와 濕氣로

물기운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闔인 厥陰과 陽明은 그 本이 風氣와 燥氣로 風(燥)의 공통점이 있으며, 樞인 少陰과 少陽은 그 本이 熱氣와 火氣로 불기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關闔樞는 그 本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는다. 表裏는 이와는 반대로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갖고 있다. 즉 太陽과 少陰은 寒熱, 陽明과 太陰은 燥濕, 厥陰과 少陽은 風火의 상반된 本을 갖고 있다.

- 3) 關闔樞를 이용한 활용의 예는 『內經』에서부터 보이며, 혼하지는 않지만 傷寒厥陰熱利, 溫病藪朴夏苓湯, 『東醫寶鑑』臟腑相關, 舍岩鍼法 등에서 응용되고 있다. 그리고 關闔樞로 三陰과 三陽이 연결될 때에는 반드시 폐-방광, 간-대장, 심-담, 비-소장, 신-삼초로 짝을 이루는 手-足の 연결관계가 이용된다.

## 참 고 문 헌

1. 김광호 강의, 김씨일침요법, 일산, 대성의학사, 2002
2. 김인락, 내경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的 연구(1),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1, 5권
3. 鄧良月 主編, 中國經絡文獻通鑿, 青島, 青島出版社, 1993
4.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5. 楊甲三 主編, 針灸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6. 王琦 李炳文 邱德文 王慶其 彭榮琛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성보사, 1983
7. 李今庸 主編, 新編黃帝內經綱目,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8. 李劉坤 강의, 임상온병학특강, 서울, 대성의학사, 2001

9. 李培生 主編, 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0. 이용범, 楊上善의 三陰三陽學說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6, 10권
11. 李梴 著, 醫學入門, 南昌: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88
12. 이태호 편저, 사암도인침구요결, 서울, 행림출판, 1985
13. 임진석,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關闔樞,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8, 11권 2호
14. 정창현, 三陰三陽의 關闔樞에 대한 신지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년 08월, 16권 2호
15.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6. 허준 저,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2
17. 胡天雄 著, 素問補識,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